

# 그림·조각으로 보는 '나'

## 문범강 교수 'BG MUN I LOVE YOU'展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의식은 결코 둘이 아니다. 얼핏 선사의 법문처럼 들린다. 하지만 선사의 말이 아니다. 한 화가가 그림과 조각으로 '보여준(?)' 말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대 교수로 뉴욕과 워싱턴의 회관에서 인정받고 있는 화가 문범강 교수(47). 그는 자신의 그림들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난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서울 세종로 네거리 일민미술관(동아일보사 구 광화문사옥)에서 자신의 걸과 속을 때론 은유적으로 때론 직설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의식속에 들어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결국 한 선상에 있음을 나타낸 '빛은 결국 하나'

이번 전시 'BG MUN-I LOVE YOU'에서는 회화 40점과 조각 작품 11점을 내놓았다. 특히 조각 작품은 문 교수의 변신을 보여준 증거물들이다.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자화상'이다. 머리를 떼어내 두 손을 받쳐놓고 '몸'이 내려다 보고 있다.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시각적인 혼란과 심플함마저 느껴지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면 이내 복잡했던 머릿속은 깨끗이 정리된다. 문 교수는 "이 작품은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집요하게 묻는 일종의 회두 참구 모습을 표현했다"며 "면벽 좌선한 상태에서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감싸고 있는 덩어리인 두뇌를

보며 의식의 실체에 대해 끊임없이 캐묻는 모습을 그렸다"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 조각 작품들도 문 교수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있는 아이디어가 나타나 있어 다채롭고 재미있다. 재료도 흙, 망, 형질, 한지, 흙 등 다양하다. 볼자들이라면 당연히 고개를 갸우뚱거릴 작품도 있다. '부처와 그의 네 명의 아내' 위쪽에는 연벽 좌선을 하는 부처님이 아래에는 네 명의 여자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에게 왜 네명의 부인?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

### "나는 누구인가" 회두 참구 모습 표현

### 회화 40점·조각 작품 등 11점 선보여

아이디어 기발, 재료도 철망·형질·흙 사용

만 이 작품 역시 보이는 세계 너머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 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참자야를 찾기 위한 면벽 좌선을 통해 깨침을 얻으면 속세의 잣대로 보는 경계를 넘어 부인의 숫자는 하나든 열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80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원에서 뒤늦게 미술공부를 시작한 문 교수의 작품 곳곳에 이렇듯 불교 사상이



◀거울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참나를 찾기 위한 과정을 표현한 '고요한 무명' 앞에 서 작품촬영을 하고 있는 문범강 교수.

녹아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마음선원 대령 스님을 친견하면서부터다. 당시 한국에 있던 누나와 형 등의 권유로 85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대령 스님 법회에 참석하고 난 뒤 문 교수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크게 얻어 맞은 듯한 큰 감동이 있었다. 그 뒤부터 대령 스님의 법문과 책들을 구입해 탐독하기 시작했다. 또 문 교수는 조지타운대내에 '명상클럽' 교실도 만들어 학기중에 미국 학생들에게 참선도 시키는 등 포교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 20-27일 오후 7시 일민미술관 강의실에서 '현대미술에 나타난 색스와 죽음'을 주제로 강의를 마련한다. ☎2020-2055

문화 담당=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월드컵 한미전이 끝난 뒤, 길거리 응원전의 여운이 채 가지지 않은 광화문을 지나가게 되었다. 붉은 빛줄기도 어릿웃기지 않고, 아직도 흥분이 채 식지 않은 붉은 옷의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모두들 무언가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고 난 뒤의, 여한이 없는 듯한 표정들이다. 외신들은, 한국인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발전에 이어 이제는 성숙한 문화적 시민의식까지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했다. 한국인들이 공동운명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순수하고 자발적인 길거리 응원이야말로 우리의 발목을 잡던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집단적 무명(無明)을 태우는 거대한 정화의식이며 축제였던 것이다. 그날 비를 맞으면서도 의연하게 쓰레기를 잡고 있는 청년들의 맑고 얼굴이 참 보기 좋았다. 그 얼굴은 나에게, 얼마 전에 보았던 코트 광릉사의 목조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떠올리게 했다. 일본의 국보 1호인 그 유명한 보살상의 재료는 경상도 지방에서만 나는 홍송(紅松)인 것으로 판명되어 신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처님과 용수보살의 전기를 쓴 독일의 실존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미륵보살상을 친견하고 이렇게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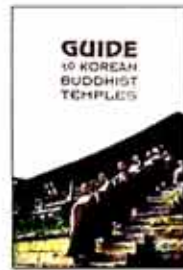
### 월드컵응원과 반가사유상

번뇌 태워버린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엷은 미소'

응원전 청년들 웃음  
다소나마 담았을까...

나는 지금까지 철학자로서, 인간존재를 최고로 표현한 여러 예술품을 접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의 조각이나 로마시대 만들어진 훌륭한 작품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아직 완전히 초극되어지지 않은 지상의 인간적인 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을 표현한 로마 시대의 종교적인 조각상에도 정화된 인간 존재의 맑다운 기쁨이 완전히 표현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 지상의 감정의 찌꺼기를 남겨둔 인간의 표현이었을 뿐, 진실로 인간 존재의 깊숙한 밑바닥까지 이르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가사유상에는 진실로 완전무결한 인간 존재 최고의 이념이 남김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어서 모든 시간적인 속박을 초월하여 달성해낸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원만하며 영원한 모습의 심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십 년 철학자로 살아오는 동안, 이만큼 인간 실존의 평화로운 모습을 구현한 예술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불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간직된 영원한 평화의 이상을 최고도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라인이 표현한 인간의 이상상(理想像)인 반가사유상의 얼굴은 번뇌를 태워버린 이만이 지을 수 있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다. 길거리 응원전을 통해 가슴속의 찌꺼기를 모두 태워 정화시킨 청년들의 모습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신감의 미소를 보여준다. 우리는 일처 단결된 공동의 힘을 표출함으로써 집단적인 정화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은 반가사유상의 이상적인 모습을 조금이나마 담았을 것이다. ■문학평론가

### 영문판 한국사찰 가이드북 발간



외국인 및 외국어 사용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영문 소개책 <Guide to Korea Buddhist Temples>가 나왔다.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와 포교원이 공동으로 만든 이 책에는 간략한 한국불교사와 사찰 기본예절, 전각의 구조와 의미, 고승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책 뒷부분에는 많이 쓰이는 불교 용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각 용어에 대한 간단한 해설도 붙였다. 또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사찰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담았다. 이 책의 영문 표기법은 정부의 로마자표기법이 아니라 충북대 국제경영학과 김복문 명예교수의 '국어의 영어식(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국제포교사회는 앞으로 삼보사찰 등을 소개하는 영문 소개책도 만들 예정이다. 값 7천원.



◀해인사 보경당에서 소리공양을 하고 있는 '살타첼로'.

### 풍경소리와 재즈가 만났다

獨 재즈그룹 해인사서 템플스테이 소리공양

을 전해들은 진명 스님(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페터피아노와 볼프강 신들러(첼로) 형제, 미니 슐츠베이스, 헤르베르트 바흐테르(드럼), 페터 레헨(색소폰) 등으로 구성된 '살타첼로'는 92년 결성돼 99년 7월 이후 세 차례 내한 공연을 갖는 등 한국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져 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진도 아리랑'과 '밀양 아리랑', 민요 '옹헤야', 트로트 '나그네 설움' 등 한국의 전통 민요와 대중가요 등을 연주해 진정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진명 스님은 "살타첼로는 이번 공연에 앞서 해인사에 하루 묵으며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며 "한국의 자연과 음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이번 소리공양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민요·대중가요 연주... 잔잔한 감흥

10일 월드컵·미선이 열리던 날 경남 함안 해인사에서는 이색적인 음악회가 있었다. 독일의 5인조 재즈그룹 '살타첼로(salta cello)'가 해인사 템플스테이 문화이벤트의 일환으로 보경당에서 작은 연주회인 소리공양을 한 것. 이번 이벤트는 축구공인 이들이 월드컵 축하공연을 위해 내한했지만 평소 한국의 신사에서 연주해 보고 싶다면 뜻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부처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or.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63-6 세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승림방장 서용 큰 스님 / 후천서

